

## 상·하류 주민간의 갈등 해소 방안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이 상 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1. 들어가는 말

1992년 리오 회의 이후 여러 가지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가 강조되었지만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전지구적인 물부족 문제이다. 물 문제가 전지구적으로 주목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이 덜 만들어지지도, 더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마크 드 빌리어스, 2001: 10). 지구상의 물의 양은 지구가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일정하다. 그러나 인간들은 함부로 물을 낭비하고 오염시킴으로써 물순환을 왜곡시켜왔고, 이로써 이제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는 지역과 홍수피해를 당하는 지역이 나타나게 되고, 국제하천에서는 물이용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일어나도 적절하게 매개하거나 중재할만한 기구가 없는 상황이어서 안보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그래서 세계은행의 환경담당 부총재이며 세계물위원회 위원장인 이스마일 세라젤딘(Ismail Serageldin)도 몇 년 전에 "21세기의 전쟁은 물로 인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한 바가 있다. 그의 예측에 대해 지나친 비판론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불행히도 그의 예측이 타당한 예측이라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러 지역에서 물분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동일한 하천을 공유하면서도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이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수리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상하류 지역간 갈등(이하 위천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의 수리권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과는 또 다른 방식의 해결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소 추상수준이 높은 제안일 수도 있지만 수리권을 설정하는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기에 앞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상하류지역이 하천에 대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일정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위천갈등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 글이 견지하는 이론적 입장과 이론적 입장에 기초한 제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 2. 위천갈등사례

위천갈등은 지난 1989년 염색업체에 대한 환경규제가 심해지면서 대구지역의 130여개 염색업체가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신규염색공단개발을 추진하고 후보 입지로 낙동강 주변의 위천지역 일대를 선정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새로운 염색공단의 등장으로 기존 염색공단이 공동화될 것을 염려한 일부 염색업체의 반대와 낙동강 수질오염을 우려한 부산-경남권의 반발, 그리고 환경부의 공단 지정 반대의견 제시로 인해 공단설립에 처음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최민영,

1997: 50). 초기에는 지자체들과 중앙정부의 관장부서 사이의 의견이 대립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확대 실시되고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위천산업단지의 건설이 이듬해 총선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자 의견대립은 지역간의 갈등으로 급속히 비화되기 시작하였다. 양 지역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고 부산에서는 시청의 점거농성까지도 불사하는 과격한 행태가 나타났다. 김대중 대통령도 1997년 대통령선거기간 중에는 취임후 6개월 이내에 위천갈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2002년 1월 현재, 낙동강특별법을 포함한 3대강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 이외에는 뚜렷한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단 위천갈등은 회소해진 자원이 물, 특히 수질오염과 수량부족이라는 이중적 제약을 가진 낙동강의 물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위천갈등은 13년이라는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으며, 갈등의 공간적인 범위도 경상남·북도,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라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또한 아직 계획단계의 공단이라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단조성시 낙동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따라서 과학기술적 조사를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경제적 보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이 갈등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을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물이 갖는 가치에 대한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천 갈등은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서 표면화되기는 했지만 국가의 중앙집중제적 국토개발방식에 대해 시민들이 환경권을 앞세워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문제 해결이나 관리에 있어서 중앙집중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

의제기로서 이해될 수도 있고, 제도권 정치 속에 포함되기 어려운 다양한 행위자들(특히 시민들)의 움직임이 과거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sup>1)</sup> 어떤 식으로 이해되든지 간에 환경 관리에 있어서 시민들의 능동적 문제제기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환경문제해결이나 환경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중앙집중제적 방식의 효과성(적실성)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국가가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위천갈등은 기본적으로 동일 하천의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 간의 물이용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지만 자연의 가치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계획에 불과하며 해당지역 범위가 광범위하여 피해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경제적 보상을 통한 협상이나 타협의 방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발생하였던 낙동강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하류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수질 관리 정책을 불신하고 있어서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위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중재노력은 지금까지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위천갈등과 같은 복잡한 원인을 가진 갈등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아래에서는 자연의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 of nature)라는 이론적 입장에 터서 위천갈등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3. 자연의 사회적 구성주의

자연과 사회의 상호작용, 즉, 사회에 의한 자연의 專有는 경제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非

1) 이처럼 국가의 전통적 역할에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정치적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인 '정치적인 것'(das Politische) 혹은 '亞政治'(subpolitics)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정치란 국가로 등치되거나 포섭된 정치가 국가 밖으로 벗어난 정치, 시민사회에서 제3의 길을 발견한 정치, 혹은 私的영역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간 정치 유형을 말한다(올리히 벡, 1998: 34의 역자주). 문순홍은 하부정치라는 말이 優劣의 개념을 내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亞政治라는 말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문순홍의 의견을 존중하여 하위정치라는 용어 대신 아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질적 차원(상징적, 상상적 차원)에서도 일어난다.<sup>2)</sup> 즉, 자연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노동을 매개로 하되 상호작용 방식은 문화적으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적 분리 논의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과 사회는 분리된 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공간의 차이에 따라 변증법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서로 통합되어가면서 변화해가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사회와 분리된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지리적으로 상이한 방식으로 '자연-사회'라는 존재가 계속 형태를 바꾸어 가는 것이며, 이 과정은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찬 것이다(Eder, 1996a; 1996b; Swyngedouw, 1999). '자연-사회'의 이러한 시·공간적인 변증법적 통합을 '자연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한다.

인간이 자연을 전유할 때는 반드시 그 사회에서 형성된 문화라는 여과장치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자연은 문화적 실천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어떤 실체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해석활동과 의미부여라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환경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의미부여 행위가 자연과 사회의 상호작용과 통합을 보증하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담론과 非물질적 영역(이데올로기, 상상력, 상징, 문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담론이란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실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일련의 실천으로서, 생산되고, 재생산되며, 전환되는 사고, 개념, 범주를 의미한다(Hajer, 1995: 60).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어떤 자연과학적 조사에 근거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생태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위기에 대한

다양한 환경 담론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Hajer, 1996: 258). 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에 근거한 환경갈등 연구는 환경 담론을 생산하는 집단들의 형성과정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제도(사회정의, 민주주의, 자연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성찰(reflexivity)이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게 된다(Hajer, 1996: 265). 즉,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에서는 환경갈등의 해결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대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불확실하지만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초하여 환경갈등을 분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잇점을 누릴 수 있다. 첫째, 자연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자연-사회 관계의 포괄적인 계기(물질적 생산, 분배의 규범, 소비 문화와 소비 담론)를 포괄하기 때문에 물이 정치화되어 갈등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자연의 사회적 구성은 환경 정치를 이질 담론 혹은 대항 담론을 통한 담론들의 투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연의 再魔法化를 통한 정치적 동원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즉, 근대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에 의해 소외되었던 대항적 환경 담론 혹은 이질적 환경 담론을 복구시켜, 脫魔法化되었던 자연에 새롭게 가치부여를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행위의 동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비합리적인 낭만주의적 정치(예컨대 나치즘과 같은 영웅주의)에 의해 대중을 호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배제되었던 담론의 복구과정은 이질 담론들이 정치적/사회적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정치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다<sup>3)</sup>. 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재마법화는 가능하다. 셋째, 자연의 사회적 구성은 사회에 대한(생태적) 성찰성(reflexivity)을 담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사회적 구성이 자연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투쟁

2) 이것은 Lefebvre(1991)가 제시한 공간의 세 가지 차원을 참조하여 제시한 것이다.

3) 여기서 합리적이라 함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반성, 즉 지배적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연을 구성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지, 규범, 상징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바람직한 '자연과 사회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잠정적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성찰을 동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으로 성찰성을 높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태적인 사회를 위한 '文化的 進化'를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이라는 자연의 전유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가치의 대립으로 인해 빚어지는 환경갈등 과정을 분석하는데는 사회 구성주의에 기초한 접근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위천갈등에 대한 분석

##### 4.1. 분석틀: 이야기거리와 담론연합

'이야기거리'란 개념은 담론 주체들과 담론을 연결시켜주는 장치의 역할을 하는 서사를 뜻한다. 즉, 이야기거리는 다양한 범주의 담론들을 종합하는 동시에 변환시키는, 다시말해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담론주체들을 결합시키는 서사인 것이다. 이야기거리는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영역들로부터 나온 요소들을 결합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공통의 理解를 갖게 해주는 상징적 참조점이다(Hajer, 1995: 62). 이러한 기능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거리는 정치적 변화를 가능케 한다. 이것은 환경 갈등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 대단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어떤 환경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야기거리의 변화를 추적하여 설명하는 것은 환경 갈등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거리가 환경갈등과 같은 담론의 정치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는 환경갈등과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담론들이 상충하고 공존하는 담론의 공간을 전제로 할 경우 이야기거리는 어떤 일상화된 관점, 담

론의 재생산 등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이야기거리는 담론주체가 어떤 지배적 이야기거리에 대해 대항 이야기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즉 담론적 도전이 가능함을 알려준다. 즉 일상화된 범주의 담론에 저항하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거리는 실제 갈등에서 담론주체들이 전술로 채택하게 되는 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넘어 이야기거리가 실제적인 파급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이야기거리를 사용하는 담론 주체들의 집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담론연합이다.

담론연합이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특정한 이야기거리에 관심을 갖는 행위자들로 구성된 집단을 기초로 한다. 그 위에 일련의 이야기거리, 그 이야기거리를 발언하는 행위자들, 그리고 이러한 담론 행위가 기초하고 있는 사회적 관습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관 담론적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 행위자들이 실제에 대한 자신들의 정의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투쟁이다(Hajer, 1995: 59). 따라서 환경갈등을 담론의 정치학으로 본다는 것은 담론을 통해서 상이하게 환경을 구성하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구성방식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대하여 집단을 형성하여, 상이한 구성방식을 갖고 있는 담론주체들과 대립하고 충돌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공유하는 담론주체들이 담론연합을 형성하여 다른 담론연합과 대치하는 것이 바로 환경갈등인 것이다. 담론연합은 전통적인 정치적 연합이나 연대, 그리고 계급집단과 다르다. 또한 담론연합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담론연합은 이야기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새로운 위상의 정치를 모색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야기거리'와 '담론연합' 개념은 환경담론의 정치로서 환경갈등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분석도구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 갈등의 갈등 전선은 상이한 담론적 질서속에서 상이하게 자연을 구성하는 집단들이 형성

하는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대립되는 이야기거리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대립되는 담론연합의 형성과 분열등을 분석함으로써 환경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단서의 추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립되는 이야기거리의 형성과 변화, 대립되는 담론연합의 형성과 분열을 분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어떤 지배적 이야기거리가 왜, 어떻게 재생산되다가 왜, 어떻게 제동이 걸렸는지, 이러한 이야기거리에 의해 형성되는 담론연합은 왜, 어떻게 형성되었다가 분열하였는지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거리와 담론연합은 위천갈등과 같이 물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에서 어떤 담론에 의해 이해관계가 형성되며, 대립하면서 낙동강이라는 자연을 구성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위천갈등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4.2. 분석의 도구: 환경담론

환경담론이란 자연의 사회적 구성 과정에서 자연에 대한 사회적 해석 활동과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담론을 뜻한다. 환경담론은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해왔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는 환경담론은 산업사회가 들어선 이후에 제기된 환경 담론을 의미한다. 산업사회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맑스주의, 전체주의-을 가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성장과 이것이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의 향유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으며, 설사 있다고 해도 산업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문제들, 예컨대 경제시스템에 투입되는 자원(목재, 어장, 광물, 토양 등)의 유지문제에만 관심을 쏟을 뿐이다 (Dryzek, 1997: 12). 따라서 산업사회가 들어선 이후의 환경담론을 논의하는 것은 산업사회에 대해 일정한 입장과 대안적 행동 방식을 논의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담론은 산업사회에 대한 입장과 대안적 행동 방식을 중심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산업사회의 정치경제적 틀을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기존의 정치경제적 시스템이 적면한 과제로서 환경문제를 논의하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산업사회의 정치경제적 틀 자체를 새롭게 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서 환경위기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관철시키는 실천은 개량적인 방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급진적인 방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환경담론을 구분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환경담론의 구분

실천방식	개량적 방법	급진적 방법
산업사회에 대한 입장		
산업사회적 틀의 인정	환경문제해결 담론	생존과 성장 담론
산업사회적 틀의 극복	지속가능성 담론	녹색급진주의 담론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환경문제 해결 담론은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주로 취하는 방식으로서 국가 환경규제나 공해통제, 그리고 세금을 통한 인센티브 기제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게 된 환경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려는 담론을 말한다. 환경문제해결 담론에는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행정적 합리주의,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주적 실용주의 담론, 환경문제를 시장기제에 맡겨서 해결하려는 경제적 합리주의 담론과 같은 하위 담론이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환경문제해결 담론은 산업사회적 틀을 인정하고, 개량적인 방식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생존과 성장' 담론은 지구자원의 한계에 대해 주목하면서 성장이 과연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전개된 담론이다. 대표적 담론은 [로마클럽]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성장의 한계』(1972)라는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담론인데, 지구자원의 고갈과 인구증가로 인해 지구자체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주장한다. 이 담론은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구 자원의 한계 때문에 영구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전면적인 권력의 재분배와 영구한 경제 성장으로부터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사회라는 틀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즉, 선택가능한 대안은 산업사회라

는 틀 속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에 지배엘리트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지속가능성' 담론은 경제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의 갈등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담론이기 때문에 산업사회라는 틀을 어떤 형식으로든 넘어서고자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으며, 다만 환경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생존과 성장' 담론처럼 묵시론적이고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급진적이라기 보다는 개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녹색급진주의' 담론은 산업사회를 넘어서서 급진적으로 생태적인 대안사회를 추구하려는 담론이다. 이 담론 안에도 하위담론들이 존재한다. 크게는 낭만주의적 전통을 고수하여 개인의 의식변화가 생태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녹색 낭만주의 담론)과 계몽주의적 가치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사회구조를 생태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입장(녹색 합리주의 담론)으로 양분될 수 있다(Dryzek, 1997: 12-15).

#### 4.3. 위천갈등의 특성4)

담론분석을 통해 위천갈등의 갈등 전선을 재구성해 본 결과 위천갈등에 참여하였던 다양한 행위자들은 크게 '지배담론연합'에 포함되는 담론주체들(대체로 대구-경북의 관료, 지배계층, 부산-경남의 관료)과 '저항담론연합' (대체로 부산-경남의 환경운동단체, 일부 대구지역 환경운동단체)에 포함되는 담론주체들로 구분되었다. 양 담론연합은 각 쟁점에 걸쳐 낙동강을 상이한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갈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담론으로 간주되던 '환경문제해결' 담론을 사용하는 담론주체들이 오히려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환경문제해결' 담론을 사용하게 되면 낙동강을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자원으로만 구

성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지역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문제해결' 담론에 근거한 갈등 해결 노력은 실제로 지역간의 대립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담론의 역동성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낙동강 물분배에 있어서 지배담론연합이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자발적 상호거래를 주장한 반면, 저항담론연합은 자발성에는 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원리에 의거하여 낙동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낙동강을 화폐가치로 환원하여 경제적 보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다. 두 담론연합이 낙동강을 상이한 방식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두 담론연합이 낙동강의 구성방식에 상호 동의할 수 있다면,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의 구성방식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갈등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위천갈등에 대한 담론분석 결과, 위천갈등은 근대적 개발 패러다임(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자연-사회관계)에 대한 생태주의적 문제제기가 점차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즉, '녹색급진주의' 담론을 사용하는 저항담론연합이 새로운 담론의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저항담론연합의 생태주의적 문제제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근대적인 환경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의 상품화에 대한 생태주의적 비판이다.

첫째, 위천갈등은 과학기술과 관료제 그리고 시장 메카니즘의 사용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근대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천갈등에서 지배담론연합은 근대적 개발 패러다임을 그대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식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담론연합은 근대적 개발 패러다임의 '실패'가 아닌 '성공'의 결과를 의문시하였다. 즉, 근대적 개발 패러다임의 성공이 가져온

4) 위천갈등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상현(2001)을 참조할 것. 이 글에서는 분량의 제한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생략하였다.

생태적 결과는 결국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위협'의 도래라는 것을 문제시 한 것이다. 낙동강의 근대적 개발이 시작된 이후 경험적으로 목격한 낙동강 생태적 조건의 악화과 수차례에 걸친 오염사고, 그리고 낙동강대책의 실패는 저항담론연합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즉, 시민들은 생활용수 부족이나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는 경험을 예전에 비해 자주 하게 되었고, 90년대 초반부터 전개된 환경운동의 확산으로 환경의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져서 저항담론연합의 주장에 지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5)</sup>

특히 이러한 대중적 지지는 낙동강 물분배 문제와 지리산 생태계 보호 문제가 연계되면서 저항담론연합에 포함된 담론주체들이 지역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보편적 맥락에서 생태주의적 주장을 하면서 더 확대되었다. 즉, 자신들은 단순히 위천공단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개발 논리에 의해 파괴된 낙동강과 그릴 위협에 처한 지리산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지역이기주의 운동이라는 혐의를 벗고 전국적인 범위의 저항담론연합이 형성될 수 있었고, 근대적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생태주의적 문제제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위천갈등은 자연의 상품화에 대한 생태주의적 비판, 그리고 전문가나 국가(관료 및 전문가)에 의한 집합체의 분배문제 해결을 생태주의적으로 비판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배담론연합은 위천갈등의 조성을 전제로 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각 해당지역이 분담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물이라는 자연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이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자연의 이용에 따른 생태적 결과가 화폐가치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을 상품화시키는 전형적으로 근대적 자본주의의 자연구성 방식인 것이다. 저항담론의 생태주의적 비판은 이러한 근대적 자본주의의 자연구성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다시말해서 근대적 자본주의의 자연구성방식이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하고, 상품화시킴으로써 자연을 탈마법화시키는 것이라면, 저항담론연합은 자연이 도구로서만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연을 다시 재마법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녹색 낭만주의' 담론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항담론연합은 전문가에 의한 갈등 해결보다는 공동의 생태계 속에 포함된 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이해를 통한 자발적 합의를 통한 갈등해결을 주장하였다. 이는 근대적 개발 패러다임에서 보이는 전문가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과는 다른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두가지 측면에서 볼 때 위천갈등은 단순히 지역감정에 기초한 지역갈등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위천갈등은 근대적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생태적 반성 혹은 성찰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동시에 효율성과 전문가 중심주의, 그리고 도구주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자본주의의 문화를 생태주의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가치 비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 5. 위천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

위에서 위천갈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위천갈등과정에서 낙동강에 대한 상이한 구성방식이 충돌한다면 위천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담론들간의 소통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상호 보완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소통이 증대되고 보완점이 더 많이 발견된다면 담론들간의 갈등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 국가가 사회적 갈등 해결 과정에 개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상이한 담론들간의 소통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집합체인 자연환경의 분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절차와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이것은 부산-경남의 끝기본부에 참여한 106개 단체가 매우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던 단체들이었다는 사실에서 반증된다.

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확실성과 위험이 만연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연-사회 간의 상호작용과 목적-수단의 관계를 공개적이고 성찰적인 방식으로 고찰하는 것이 위험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Hayward, 1995: 186).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주도의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이나 낙동강물이용조사단 활동 등은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관리종합대책이나 조사단 활동은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같이 위천갈등의 담론주체들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낙동강의 구성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혹은 상호인정이 확보되려면 더 많은 풀뿌리 행위자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가 아닌 실질적인 합의 형성의 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적인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권)

〈 참고문헌 〉

마크 드 빌리어스 지음, 박희경·최동진 옮김, 2001, 『물의 위기: 소중한 우리 자원의 운명』, 세종연구원

올리히 벡, 문순홍 옮김, 1998, 『정치의 재발견: 위험사회 그 이후-재귀적 근대사회』, 서울: 거름

이상현, 2001, “물이용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담론분석-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민영, 1997, “지방정부간 환경갈등조정 방안: 위천국가공단조성사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Dryzek, J., 1997, *The Politics of the Earth: Environmental Discourse*, Oxford: Oxford Univ. Press

Eder, K., (trans. by)Ritter, M., 1996a, *The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 A Sociology of Ecological Enlightenment*, London: Sage Publications.

Eder, K., 1996b, “The Institutionalisation of Environmentalism: Ecological Discourse and the Second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in Lash, S., Szerszynski, B. & Wynne, B.(ed), *Risk, Environment and Modernity: Towards a New Ec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Hajer, M., 1995,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course: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the Policy Process*, Clarendon Press.

Hajer, M., 1996, “Ecological Modernisation as Cultural Politics”, in Lash, S., Szerszynski, B. & Wynne, B.(ed), *Risk, Environment and Modernity: Towards a New Ecology*, London: SAGE Publications.

Hayward, T., 1995, *Ecological Thought: an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Lefebvre, H., (trans. by) Donaldson-Smith, N.,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asil Blackwell.

Swyngedouw, E., 1999, “The production of nature: Water and Modernisation in Spain”, *AAAG*, Vol. 89(3).